미용성형 의료기술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태희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성형에 관한 지식·정보의 학습에 능동적인 여성 주체의 등장을 미용성형의 탈신비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는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성형에 수반되는 고통, 위험, 불확실성 등 모순적인 가치들이 공존하면서 미용성형이 탈신비화되는 공간이다. 여성들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의 친밀성,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과 몸 사이의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변형 중인' 몸 이미지들이 고통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유머러스하게 재현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범주화되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전환되면서 비가시화되는 데에서 비롯되며 여성의 몸과 자아의 성찰적인 소통을 방해한다. 미용성형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사이의 간극은 미용성형주체 '되기'의 과정이 성형에 내재한 모순적인 가치들을 스스로 해결할 책임을 지는 주체와 이들에게 요구되는 주체적인 선택의 의미를 질문하는 주체를 공존시키면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주제어 : 미용성형, 미용성형 주체, 비포/애프터 모델, 탈신비화, 고통

---

* 이 글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태희원, 2011)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방송통신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사. hwtae@hanmail.net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2011) pp. 89-129

ⓒ 201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은 의료의 산업화와 대중매체에서 제공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 웰빙(well-being) 담론 등 소비문화적 특성과 결합하여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연예인의 성형고백이나 성형외과 광고의 수술 전후 이미지, 그리고 새로운 성형 의료기술을 소개하거나 불법시술의 위험을 경고하는 방송, 신문기사 등은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미용성형을 보다 익숙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미용성형이 보다 '자연스러운' 외모관리로 범주화되고 있는 현재적 맥락이 성형외과 광고나 의사들, 그리고 성형 관련 의료장비와 보형물의 양적인 증가 등 시장의 규모를 보고하는 통계수치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어떤 부위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지 등에 관한 지식의 획득과 소통, 그리고 어떤 수술이 잘된 수술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을 지속하게 되는 개인의 일상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파악됨을 말해준다.

여성들의 일상적 수다에서 성형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가 되고 있고, 성형에 관한 지식, 정보, 그리고 성형 경험담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용성형 광고나 기사 등을 통해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 직접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하는 등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최근 여성들은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술 방식이나 기법, 물질, 기기 등에 관한 대중화된 의료지식을 획득하며 성형을 경험한 여성들이 제공하는 성형 후기를 접하면서 성형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결과를 예측해보기도 한다. 이는 여성들에게 성형이 이상적인

몸을 갖고자 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성형을 해야 하는가'에 스스로 답하기 위한 준비와 학습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지식, 정보가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형 절차와 회복기, 그리고 성형에 수반되는 고통, 위험,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용성형의 지배적인 재현방식이었던 비포/애프터(before/after) 모델이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여성들에게 성형은 '마법 같은 변신'이기보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기술들, 물질, 기기 등이 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몸 변형의 가능성과 기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회복기간과 부작용, 합병증, 결과의 불확실성 등이 공존하는 외모관리로 의미되고 있기 때문이다(Brooks, 2004; Jones, 2005).

미용성형에 관한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미용성형 실천을 여성의 사회적 위치, 규범, 자본, 기술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함으로써 미용성형을 추동하는 동기와 억압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해왔고, 특히 가부장적인 미 규범에 공모하는 미용성형 의료자본은 기술 중심적인 재현을 전면화하면서 성형에 수반되는 고통이나 위험, 불확실성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다(보르도, 1993; 우경자, 2002; 임인숙, 2002; Morgan, 1991).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미용성형시장이 여성의 '동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형에 관한 지식·정보가 학습되며, 그 내용이 성형 의료기술의 탈신비화(demystification)에 있게 되는 현재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해당 연구들이 위치했던 미용성형시장의 특수한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비포/애프터 모델이 해체되고 미용성형이 소비로 인식되는 현재와 달리, 비포/애프터 모델이 견고하였던 과거에

미용성형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들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 주체들이 '선택의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포착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용성형을 실천하는 여성들이 성형수술자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용성형담론과 상호주관적인 과정 속에 있는 미용성형 주체라는 통찰은 현재 미용성형시장에서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가 미용성형 주체 '되기'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Fraser, 2003; Pitts-Taylor, 2007). 미용성형의 가능성, 고통, 위험, 불확실성에 관한 지식·정보의 학습이 미용성형 실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이들 지식과 정보들을 소비하고 생산하며 재구성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미용성형 주체가 형성되는 방식, 그리고 미용성형시장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 모두를 탐색하는 유의미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주체들이 성형을 학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대한 정보량과 개인 상호 간의 온라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 주체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식, 정보, 정서의 내용과 성격을 고찰하고, 이들이 미용성형의 탈신비화 과정과 관련을 맺으면서 미용성형의 개념과 몸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가능성과 기대뿐만 아니라 위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미용성형시장의 모순적이고 불안정한 지형이 여성 주체의 실천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안정화를 추구하는 시장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분석 및 이론적 논의: 비포/애프터 모델의 변화와 지식화된 '환자'의 등장

미용성형을 비롯한 여성의 몸 관리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들은 몸 이미지와 자아 개념의 형성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여성의 독특한 위치에서 온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여성의 몸 관리를 사회·문화적인 차원과 관련지어 논의해왔다. 연구의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해본다면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가부장적인 몸 규범이 여성들의 몸 관리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주목하는 연구들(고석주·정진경, 1992; 권수현 외, 1996; 김은실, 2006; 장정화, 2001; 최현진, 2004; 한서설아, 2000)과 이상적인 이미지를 주조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실천을 제공하는 외모산업과 미디어 등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임인숙, 2002; 우경자, 2002; 정세진, 2005; 최옥선, 2005)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여성들의 몸 관리가 성별화된 사회·문화적 규범들과 성형의료복합체의 전략들에 의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몸 관리 방식, 연령, 노동시장, 성형에 대한 가부장적 낙인, 과장되어 유포되는 성형의료 광고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여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해당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를 생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여성들의 몸 관리 실천은 기존의 여성성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고 여성들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하지만, 성형과 같이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행위의 경우 여성들을 차별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미용성형시장이 미 규범과 의료, 자본의 결합 속에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지만, 비포/애

프터 모델의 변화처럼 미용성형시장의 재현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성형을 학습과 준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여성 주체들이 등장하는 등 현재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하여 성형수술에 반대하는 이들은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술 과정과 회복기의 고통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포/애프터 모델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보르도, 2003; Morgan, 1991). 비포/애프터 모델에서 성형수술은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가의 수술비용, 전문적이고 정교한 첨단의 의료기술, 감쪽같이 변화된 애프터 사진 등으로 재현되었고, 피와 멍으로 얼룩지고 부은 얼굴, 기계·보형물이 부착된 몸 등 수술에 따르는 고통의 이미지들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1]. 하지만 최근들어 주목되는 변화는 비포와 애프터 사이의 시·공간이 성형수술의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용성형 과정 전반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변화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동아TV나 온스타일 등 케이블 방송사들은 2004년부터 미국의 방송사들에서 제작된 '익스트림 메이크오버(Extreme Makeover)'나 '미운 오리 백조 되기(The Swan)' 등 성형 과정 전반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방송해왔다. 존스

1) 이러한 문제의식은 성형수술의 급증에 대해 우려적인 시선을 보내는 미디어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들과도 공유되었다.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것은 불법 시술자 혹은 양심적이지 않은 의사의 존재, '중국산', 혹은 공업용 물질 등을 이용한 '잘못된' 소비이거나 성형수술로 인한 '극소수'의 사고들이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여성들을 의료자본의 피해자, 혹은 '무분별한 소비자'로 두는 여성혐오적 문화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하고, 불법 시술자나 상업적인 의사, 인증되지 않은 물질의 사용 등 예외적인 국면들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안전한 경로를 통한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생산한다.

(Jones)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회복기의 붕대를 감은 부은 얼굴, 몸과 연결된 기구들, 먹거나 걷기 힘들어 하는 모습 등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미용성형은 일상적 삶의 일부로 통합되기 쉬운 사건"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Jones, 2005). 수술기술은 탈신비화되고 수술의 고통, 회복기의 힘듦은 한 번도 수술을 경험하지 못한 개인들에게는 더 이상 놀라울 만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시청자와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상물을 통해 성형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성형이 가진 변형의 힘을 믿게 만들고 또한 성형수술 자체를 익숙하게도 만든다. 이와 더불어 미용성형을 학습과 준비로 의미화하는 여성 주체들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를 통하여 미용성형의 탈신비화를 주도하는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미용성형시장에는 첨단의 의료기술과 기계, 보형물 등으로 상징되는 수술의 전문성, 정교함,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전문의와 비전문의 논란, 위험성과 부작용을 경고하는 지식들이 공존한다. 복잡한 의미들이 교차하는 성형수술의 장에서 '신중하고 똑똑한 소비'를 요구받는 상황은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를 접속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가 되며, 여성들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수술을 경험하였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 경험적인 지식들에 의존하여 미용성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들 여성 주체들은 의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자'의 위치에 머무르기보다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의료 서비스 소비자이며 지식화된 환자(informed patient)[2]들이다(Henwood et al, 2003). 지식화된 환자 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지식화된 환자들이 의사-환자, 전문지식-비전문지식 간의 위계적

인 관계를 균열시키고 있고 일반인들이 유통시키는 비전문지식을 오히려 특권화시키면서 환자를 임파워(empower)시킨다고 주장한다. 퍼거슨(Ferguson)은 현대사회에서 지식화된 환자 주체 형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을 '온라인 자조자(online self-helper)'라고 규정하기도 했다(Ferguson, 1997). 한편, 딕슨-우즈(Dixon-Woods)는 지식화된 환자가 습득하는 지식과 정보의 성격을 문제 삼으면서 그것이 환자를 임파워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Dixon-Woods, 2001). 환자들 사이에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은 의학을 특권화하는 것이 지배적이므로 막상 일반인들의 지식과 전문지식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때 우위에 있는 것은 언제나 전문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습득한 지식은 '선택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순응을 위한 정보'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럽튼(Lupton)은 이러한 논쟁들이 개인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로 전제하며 지식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개인이 의료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한다(Lupton, 1997). 지식 자체의 전문성 혹은 비전문성에 주목하는 것은 실제 의료화 과정이 감정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전문가적인 지식과 개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복잡한 권력의 협상이 존재함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럽튼은 '지식화된 환자'라는 개념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인 개인의 행위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시장화되고 있는 의료

2) '지식화된'이라는 표기는 '지식을 획득한'과 같은 확정적인 어감이 강해 환자들이 획득한 지식, 정보가 대중화된 수준으로 각색된 의료지식에 가깝고 동시에 이들의 지식과 전문 의료지식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번역어일 수 있다. 적절한 번역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병기하여 사용한다.

체계가 기대하는 소비자의 형태로 환자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권력관계를 함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미용성형의 선택을 지식의 학습과 준비로 규정하는 여성 주체의 등장은 이들을 지식화된 환자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효과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지식화된 환자가 구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복잡성과 미세한 권력관계의 동학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탐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미용성형 지식의 학습과 소비 과정은 단지 의학적인 전문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기보다 여성 주체들이 참여하여 이 지식을 학습하고 재가공하여 공유하면서 미용성형 수술의 정서, 의미들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미용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여성 주체들의 실천을 미용성형의 탈신비화 경향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미용성형 경험자와의 심층면접, 미용성형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관찰 및 성형과 관련한 신문·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성형의 문화적 의미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영화와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의 재현물들을 참고하였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미용성형 커뮤니티 두 곳과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참여관찰 하였다.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는 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주 언급되었던 인터넷 커뮤니티 두 곳(A까페, B까페)을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하였고 각종 성형외

과의 홈페이지 역시 참고하였다. 그리고 성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10명의 여성들과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거나 직접 이메일을 보내 면접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이며, 직접적인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사례 5, 사례 8)는 온라인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 〈표 1〉은 미용성형 경험자 여성의 인적사항과 성형 경험을 간략하게 표로 구성한 것이다.

<표 1> 심층면접 참여자 인적사항: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여성

번호	연령	직업	성형경험 /당시나이	참고사항
1	33	전업주부	쌍꺼풀/31세	결혼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고 한 살 아이를 두고 있음
2	24	대학생	쌍꺼풀, 코성형/22세	인터넷 성형커뮤니티 회원
3	28	회사원	쌍꺼풀/28세	중국 IT업계 근무
4	40	회사원	보톡스, 코성형, 턱윤곽술/38세 코재수술, 지방흡입, 이식/39-40세	대기업 중간간부로 성과급을 받고 휴가를 내어 수술 받음
5	22	대학생	코성형/22세	인터넷 '무료성형' 이벤트에 당첨됨
6	40	주부 다단계사업	보톡스/36세 눈밑지방제거/39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다단계사업을 시작함
7	45	자영업	코성형/35세 코재수술, 피부/45세	지방의 한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8	32	전업주부	보톡스, 지방이식/30세	성형 후기를 올리는 개인 블로그 보유
9	22	대학생	코성형/20세	어머니가 대학 합격을 조건으로 코 성형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례
10	24	대학생	쌍꺼풀/14세 코, 치아성형/22세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 경험이 있으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다양한 몸 관리를 받음

4. 미용성형의 학습과 지식, 정서, 경제적 가치

여성들이 미용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경로는 다양한 병원 광고물들과 방송, 인터넷, 주변 지인, 그리고 직접적인 병원방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미용성형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성형을 결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용성형을 학습하는 여성들의 범주는 적극적으로 병원과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병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심이 서지 않았던 상태"이거나, "성형은 안하면서 아는 것은 많은" 여성들 등 다양한 층위를 보인다. 미용성형을 자신에게 가능한 실천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공간: '보편적인' 실천으로 자아경험 구성

여성들은 방대한 정보량과 개인 상호 간의 온라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술과 접속하면서 미용성형시장과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인터넷 공간은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성형에 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사적인 고민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아닌 익명의 개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성형을 준비하고 경험하게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은 자신이 원하는 신체부위의 변형을 가능하게 할 수술 기술들의 종류와 방법, 절차는 어떠한지, 실제 성형을 경험한 이들의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Q: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리고 제 눈을. 사진을 찍어서 이런 눈인데 하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답변을 달아놔요. 이빨도 올린 적 있어요. 교정이 어떻게 들어가나 물어보고. 카페(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도 들어가서 한 애들 보니까 진짜 다 잘된 거예요.

Q: 인터넷은 계속 자주 들어갔어요? 아님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부터 막 들어간 거죠.

Q: 질문은 어떻게 올렸어요?
이게 제 눈인데 매몰법으로 가능할까요? 퀵 쌍꺼풀로도 될까요? 하면 예뻐질까요? 하면 이 눈은 여기가 좁고 처져서 전체적인 얼굴은 안올려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의사들이 이 눈은 절개를 해야 한다, 매몰로는 안 된다, 끝이 처져서 잘라내야 한다, 앞트임도 해야 한다, 너무 답답하다고. 웃음. 이 눈은 앞트임과 절개법을 하든지 부분 절개로 가야한다.
(사례 1, 33세, 전업주부)

33세의 전업주부인 사례 1은 미용성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1이 성형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인터넷에 얼굴 사진에서 눈만을 캡처하여 올린 후 어떤 성형을 해야 할지, 결과는 어떨지 질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나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형수술 후기들을 읽었다. 성형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형을 결심한 직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가 올린 질문을 보면 '매몰법'이나 '퀵 쌍꺼풀'이라는 수술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했고 새로운 수술법들로 쌍꺼풀은 빨리 하고 부기도 빨리 빠진다"는 말이 성형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그녀를 움직인 가장 큰 계기였다. '혁신적인' 신기술이라는 특수성과 해당 기술의 사용법과 같은 정보들은 성형을 보다 용이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수많은 정보들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은 단지 특정 몸 부위의 변형 가능성을 진단하고 수술기법을 제공하는 의사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의 다른 여성들의 경험적인 지식들을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부각시킨다. 미용성형이 광고되는 것만큼 실제로 더 나은 외모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미용성형과 관련한 커뮤니티가 적지 않고, 특히 회원 수가 몇 만 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이는 여성들의 미용성형 실천에 성형 관련 지식의 학습과 정보 공유가 중요한 단계로 들어와 있으며, 여성들이 대중화된 의료지식을 경험을 통해 재구성하여 관심사를 함께 하는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접 수술을 경험한 회원들의 성형 경험담이 게시되며 성형을 고민하는 이들은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 하고 내 외모가 어떤지, 수술을 해야 할지 등을 익명의 회원들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관련 게시물에는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법으로 수술을 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오며, 이를 참조하여 성형 종목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성형 후 부기 관리를 위한 찜질법이나 운동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일정 주기별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는 성형 후기에는 '나도 그 과정을 거쳤다', '시간이 약이

다', '개인과의 싸움인 것 같다' 등 회복 가능성을 독려하거나 '축하한다', '애썼다'라는 댓글들이 달린다. 성형 커뮤니티는 미용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학습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의례와 정서가 교환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여성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용성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미용성형 경험을 특수한 것이기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실천으로 구성하게 된다.

2) 경험적 지식의 공유와 정서적 위안/자기 호명

미용성형을 직접 경험한 여성이 설명하는 미용성형의 효과는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결심할 때 가장 주저하는 점은 미용성형으로 과연 몸이 원하는 대로 변화될 수 있는지이기 때문이다. 수술 전부터 이후까지 경과별 사진들을 통해 성형을 통과하는 몸 경험이 어떤지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미용성형 후기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후기는 아무래도 직접 수술한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믿음직스러웠고. 무엇보다 성형의 목적은 결국 그걸 하는 것 자체보다 그 '후'에 이뻐지는 어떤 결과'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먼저 했던 선배(?)들의 결과가 궁금했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중략)
>
> 수술 후 점점 부기 가라앉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변화 과정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느끼기도 했어요.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기도 했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가짐이 변하거든요. 근데 대부

> 분은 다 좋은 결과를 얻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예전보다는. 그러다보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면에서 후기를 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카페에 올리는 후기는 "이 정도니 알고 해라." 같은 정보 성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수술할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썼어요. 솔직히 그런 카페 사람들 보면 굉장히 수술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맹목적인 사람도 있고. 사실 수술한다고 다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사례 2, 24세, 대학생)

사례 2는 성형을 결심하면서 정말 예뻐지는지, 어느 정도 예뻐지는지 성형 후기를 보고자 A카페에 가입했다. 다른 사람의 성형 후기만을 관찰하다가 수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뻐졌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다. 성형을 통한 자신감, 만족감은 상식처럼 이야기되지만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 유동적인 감정이다(Heyes, 2007: 63). 여성들은 매우 다양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고, 또한 매우 다른 수술 절차들을 경험하며, 그 결과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용성형과 개인이 맺는 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다층적이고 다양한 장에 위치하는 개인들의 태도나 재현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례 2의 경우 주변 친구들이 성형에 별 관심이 없으며, 성형한 여성을 쉽게 비하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의 성형 경험이 하나의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녀에게 온라인 성형 커뮤니티 바깥의 실제 삶은 성형에 대한 자신감이나 만족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반면, 회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수술의 의지와 결과 모두에 관용적인 커뮤니티 특유의 정서가 성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성형한 몸을 과시할만

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그녀가 성형 후기를 올리고 싶었던 이유에는 성형에 대해 맹목적이리만큼 긍정적인 커뮤니티의 정서에 대한 불편함도 관여하는데 이는 그녀가 성형에 관용적인 커뮤니티의 지배적인 정서에 완전히 공감하지는 않지만 반대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해당 공간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형수술 후기는 보통 수술 후 얼굴과 몸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과별 사진과 설명들로 구성된다. 기간이 경과하면서 게시자는 이른바 '염장샷'[3]이라며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찍어 올린다.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서 '염장샷'까지 전개되는 사진의 흐름은 성형이 단 시간에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술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두려움, 회복가능성에 대한 불투명함 등 잠재적인 '환자'가 경험하는 불안함을 안정시키는 정서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중국 IT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작년 여름휴가 때 한국을 방문하여 성형수술을 할 생각이었던 사례 3에게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성형외과 홈페이지는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찾는 유용한 방법이 되었고 상세한 후기들은 성형 전과 이후 회복기에 정서적인 위안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 성형외과 여러 개 찾았었는데 ○○성형외과 후기가 좋더라구요. 저는 잘 된 케이스를 보면서 나도 잘 하면 잘 될거야 이런 마음 먹으려고 후기 위주로 찾아봤어요. 거의 매일 들어가서 이거 내 눈이랑 비슷하다, 나도 바뀔 수 있겠지 했어요… B카페는 수술하기 전, 수술한 후 계속 들어갔어요. 수술한 후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잘된 사진 보면서, 특히 3-4주 후 후

3) '염장샷'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어휘로 다른 사람이 보고 부러워할만한 사진을 의미한다.

기 보면서 위로를 받죠. 나도 이렇게 될거야. 그리고 찜질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도 찾아보구요. (사례 3, 28세, 직장인)

사례 3은 수술을 결심하기 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존재를 몰랐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여름휴가 때부터 집중적으로 성형 관련 정보를 검색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여러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술 후기를 찾아 읽었다. 그녀가 집중해서 보았던 수술 후기는 수술 결과가 좋은 경우이며, 현재 자신의 눈과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의 후기였다. 그녀는 "나도 잘 하면 잘 될거야", "나도 바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였다고 했는데 경험자들이 올려놓은 수술 후기는 해당 병원이나 수술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용성형으로 인한 몸 변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믿도록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정서적 과정을 수반함을 알 수 있다. 사례 3은 수술 후 집에 머물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후기 사진들을 통해 "나도 이렇게 될거야" 하고 위안을 얻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려주는 대로 부기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찜질을 열심히 하였다고 했다. 미용성형을 망설이는 사람의 대부분은 수술 자체에 대한 공포와 수술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엄현신, 2007). 인터넷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성형 후기는 성형에 관한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성형의 가능성을 학습하는 공간이고 회복기의 고통은 "견디면 반드시 나아진다."는 위안을 제공한다. 인터넷 성형수술 후기에 대한 수많은 호응 댓글들은 후기 게시자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몸 변형의 가능성을 확신시키며 스스로를 미용성형 시장의 소비자/환자 주체로 호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시각화되는 몸, 정서, 경제적 가치

인터넷 커뮤니티 내부의 친밀한 정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익명의 여성들의 모임'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형을 했거나 할 예정인 여성들은 자기를 모르는 타인들의 시선을 통해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며 타인의 평가와 조언을 참조하여 객관화된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끼리의 평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성형고민이나 결과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커뮤니티 특유의 정서는 성형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보다 가능하게 만든다.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나 성형외과 홈페이지가 몸 변형 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성형을 할 의향이 있는 이들이 검색을 통해 방문하는 곳이므로 결국 자신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 사람들이 후기 보면서 얻는 것은 아프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얼마만큼 예뻐지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희망이나 기대같은 거요. 예뻐지는 과정에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별 생각 없이 수술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지도 않았구요. 그냥 후기 보면서 즐겼던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예뻐졌다라는 과정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나도 진짜 수술하면 저렇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 (사례 2, 24세, 대학생)

수술 후기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변형 중인 몸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A까페의 운영자는 우리들은 모두 '이미지 홀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술 후기에서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도 한다. A까페의 회원인 사례 2는 성형 후기가 희망이나 기대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변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험적인 지식과 정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해지는 성형수술 후기는 여성의 몸이 단지 의료화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환기시키는 시각적 상품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품 사이트들이 활용하는 주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상품 구입자의 사용 후기나 댓글, 그리고 구입한 옷을 입고 찍은 '착용 샷' 등은 해당 매장과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미용성형시장의 경우 비포에서 애프터의 과정에 있는 여성의 몸이 제품과 의상을 대체한다. 미용성형이 산업화된 시장의 회로 속에서 유통될 때 수술 과정과 회복기의 고통들을 체현한 여성의 몸은 그 과정을 견뎌내고 더 나아질 몸을 상상하게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할 미용성형 기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그 자체로 흥미롭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각적 상품이 되어 새로운 소비욕구를 추동하는 대상으로 위치한다[4].

미용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성형이 보편적인 외모관리로 정상화되는 것처럼 언설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성들이 미용성형을 하면서

4) 이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몸 변형 과정을 시각적으로 상품화하여 여성의 몸, 고통이 대중적인 소비를 위한 상품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을 말해준다. 여성의 몸 변형 이미지들은 단지 병원의 홍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중의 시선을 끌어 모을 선정성을 지닌다. 맥퍼슨(McPherson)은 이러한 경향을 미용성형 포르노그래피(cosmetic surgery phornography)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McPherson, 2005). 성형수술 후기는 수술 전 상담에서 회복되기까지의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잠재적인 '환자'들에게 성형의 가능성을 확신시키고 고통의 과도함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투자해야 할 비용, 시간, 고용자들에 의한 감정노동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느끼는 정서와는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간극 속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미용성형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도덕적 낙인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된다. 여성들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과 정서적 지지를 교환하며 미용성형의 가능성과 자신의 몸을 연결시키는 체험들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정서적 체험은 담론의 수용자인 관객성에 관한 문화연구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문화연구에서 담론의 관객이 되는 개인들은 지배적인 담론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일상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때 개인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지배적인 서사에 대해 동의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여부에 있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애착이나 사회성, 정보 공유의 역량에 있게 된다(Allison,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미용성형 정보들, 인터넷을 통한 성형 경험의 공유와 정서적 지지의 교환 등은 미용성형담론이 생산하는 특수한 정서 혹은 애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미용성형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있지 않으며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지식, 정보를 공유하며, 의료기술이나 자신의 몸 자체와 새로운 방식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에서 온다. 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즐거움과 정서는 미용성형 실천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잠재성을 지닌다.

5. 미용성형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미용성형을 학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매개물이 되는 성

형 후기의 내용과 의미 생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형 후기는 수술에 수반되는 고통의 과정들이 은폐되기보다 상세하게 기술되며 의료기술을 탈신비화하고 있는데 이는 비포/애프터 모델의 변화가 미용성형시장의 지배적인 전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1) 고통의 재현과 성형수술적 몸 이해의 생산

성형수술 후기는 대부분 수술 후 멍들고 부은 얼굴, 얼굴에 연결된 호스나 광대뼈에 박힌 스테이플러 심, 코를 막고 있는 솜을 견디는 것 등 회복기의 몸 상태와 변화를 시각화한 사진들과 설명들로 구성된다. 이들 후기들은 회복기의 '기괴한' 모습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그 재현 방식이 '밝은 톤의 사진들과 게시자의 발랄한 어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의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로 코 성형을 받은 사례 5가 해당 사이트에 올린 수술 후기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

> 드디어 제가 후기를 올리네요. 다른 분들 후기보고 댓글만 달다가 호홋! (중략) 매니저 언니랑 우선 상담을 했어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의논했죠~ 저는 뭐 제 사진이 지하철에만 붙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했어요.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갈 듯. (코 성형만 하는 거라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어 지하철까진 못 붙인다고 하시더라고요.)...수술대에 오르니 긴장이...수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푹 주무시면 끝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서웠지만 매니저 언니랑 대화하는 도중에 잠들었다는...진짜 편하게 해주셨어요. 수술은 1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회복실에 누워서 마취가 풀리길 기다렸는데 어찌나 안풀리는지 힘들었습니닷...
> (사진 설명: 수술 하루 전, 수술하기 직전, 수술 후 집에 와서)

수술 하루 전부터 수술 후 집에 와서 찍은 사진이예여.ㅎ 코가 꽤 높아졌죠 ? 조금 부기가 있지만 많이는 없었어요.ㅎㅎ 완전 신났다는 > <ㅋㅋ 통증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았어요.ㅎㅎ 불편한 게 하나 있다면 콧속을 막아놓은 솜 때문에 숨을 입으로 ...자꾸 목이랑 입술이 타더라구요 ㅠㅠ흑 밤에 고생 좀 했어요. 계속 깨서 물 마시고 자고...

<수술 당일>

코가 많이 높아졌어요.ㅎㅎ콧속에 솜 넣어둔 거.. 피가 많이 고였죠? 계속 피가 나와서 끊임없이 닦아줬답니다.ㅠㅠ하루만 넣어두면 된다고 해서 잘 참았어요.ㅎㅎㅎ첫 날은 부기도 없고.ㅎㅎ 좋았어요. 하지만 셋째 날까지 퉁퉁 부어요!!! ㅠ ㅠ

<수술 둘쨋날>

둘쨋날입니다.ㅠㅅㅠ 꽤 많이 부었죠. 눈이랑 미간 쪽이 엄청 부었답니다. 볼과 턱은 많이 붓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였어요. ㅎㅎ전 수술 당일과 둘쨋날 엄청 놀러 다녔답니다.ㅎㅎ무지 추웠는데두 불구하구 ..ㅋㅋㅋㅋ 대단하죠 저 ?ㅋㅋㅋ당당한 뇨자이니까여 .ㅎㅎ열심히 찜질 중인 체리입니닷!!

<수술 세쨋날>

엄청 부었습니다.....눈이며 미간이며 볼이며 턱이며..세상에 아침에 눈이 안떠지더라구요.ㅠㅠ쌍커풀은 거의 없어질려구 하구. 입도 안떨어지구 말하는데 볼은 움직이지도 않더라구요 ㅠ ㅠ흑흑.ㅋㅋ전 매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사진도 찍어야 해서) 매니저 언니가 부은 절 보며 귀엽다구 호빵맨 같다구 하시더라구요 'ㅁ' ...매니저 언니 비위도 좋으셔...ㅋㅋㅋ (중략) 선풍기 체리가 되어 우울했지만 넷째날부터는 부기가 빠지는 시기래여~ 찜질 열심히 해야겠습니다!ㅎㅎ...ㅠㅠ 흑 아무튼 저 이뻐지는 모습 천천히 봐주세여 ^-^ ㅎ (사례 5, 22세, 대학생, 수술 후기 중)

사례 5가 작성한 후기는 병원 방문부터 수술실에서 느꼈던 감정들,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코디네이터에게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힘들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수술 이후 콧속을 막아놓은 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흘러내리는 피를 계속 닦아 주어

야 했다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힘듦은 발랄한 어투와 이모티콘으로 설명되고, 멍들고 부은 얼굴을 만화 캐릭터인 '호빵맨'에 비유하거나 스스로를 '선풍기 체리'라고 이야기하는 등 유머러스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부기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자신을 '당당한 뇨자(여자)'라고도 표현한다.

그녀의 후기는 성형을 고통이 전혀 없는 마법과도 같은 변신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신비화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수술 과정이나 신체적인 고통이나 부작용, 힘든 회복기를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기술하면서 수술에 수반되는 몸의 고통이나 힘듦에 대한 민감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실 속에서도 성형 경험을 설명할 때 몸 변화와 고통은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머러스하게 재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례 4는 안면윤곽 수술 후 두유를 먹으며 버텼던 힘든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 그래도 옆선은 만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몸의 고통은 몸 변형에 대한 만족감과 즉각적으로 병치된다. 이러한 경향은 성형이 실패하였을 경우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데, 사례 4나 사례 5는 코 성형이 실패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느꼈던 괴로움을 '아바타'나 '마이클 잭슨 코'라고 놀리는 남편,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고통의 유머러스한 재현은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몸에 대한 다른 이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룩스(Brooks, 2004)는 각종 잡지에 실린 성형수술자의 인터뷰들에서 고통이 유머코드를 통해 재현되는 경향을 분석한 바 있다. 성형 이후에 수반되는 고통은 솔직한 수사들로 기술되는데 이는 다량의 진정제 복용, 수술 후 처치들, 실력 있는 의사 등 즉각적인

해결법들과 병치되거나 혹은 “의사를 믿지 마라”, “주변에서 ㅇㅇ같다고 놀린다”거나 “괴롭다. 하지만 만족스럽다” 등 유머러스한 틀로 재현된다. 브룩스는 이러한 경향이 고통을 재조정하고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몸과 자아의 성찰적 소통을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멍들고 붓고 피를 흘리는 몸이 자아에게 보내는 신호는 거부되고 ‘몸에 대한 성형 친화적인 이해(cosmetic surgery-friendly understanding of the body)’, 즉 의료기술이 개입하고 고통과 부작용을 견디며 재수술이 가능한 몸에 대한 이해가 생산된다는 것이다.

몸에 대한 다른 이해는 사례 5의 성형 후기에 달린 댓글들의 내용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사례 5는 수술한 코에 염증이 생기면서 3주차까지 성형 후기를 적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부기가 빠지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고 신속하게 보형물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정상적인 회복기의 내용을 담은 후기를 처음 올렸을 때 사람들은 수술할 수 있는 용기와 회복기의 힘듦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응원을 보내는 댓글을 달았었다. 정서적 지지와 공감은 그녀가 수술 실패로 후기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서도 이어진다. 염증은 생길 수 있고 본인도 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얘기들, 재수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댓글들은 일회적인 수술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그리고 재수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미용성형과 몸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용성형에 관한 재현들은 몸의 고통이나 부작용, 합병증의 사례들을 은폐하기보다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재현들을 보는 이들은 몸에 개입하는 의료기술의 작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형이 초래할 위험과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인식하게 된다.

2) 고통의 재현과 고통의 게토화

성형이 완벽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은 성형의 효과를 무조건적으로 확신하지 않는 미용성형 주체의 태도를 구성한다. 하지만 부작용과 염증 등 명확한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얼굴로 재수술이 가능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환자'의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례 5는 염증으로 보형물을 제거한 후 재수술을 위해 4개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였다. 사례 5는 코의 보형물을 제거한 후 성형수술 후기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해당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 3주차까지 후기를 적다가 중단을 했는데 늦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3주차 확인하러 갔을 때 부기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 염증이 있어서 보형물(실리콘)을 급히 빼야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알아보니 염증은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병원 측 잘못일 수도 있으나 정확히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멀쩡한 코에도 아무 이유 없이 날 수 있는 게 염증이라네요. 제가 수술했던 날짜가 이번 겨울 제일 추웠던 날이고 지내던 집하고 병원이 너무 멀어서 고생하긴 했어요. 거기다가 수술직후 감기몸살까지 걸렸으니. 빨리 병원을 갔었더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집이 지방이고 병원은 서울이라 가기가 힘들어 3주차에 갔더니 결국 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사례 5, 22세, 대학생, 성형 후기)

그녀의 글에서 보형물을 빼야 했던 위험상황을 초래한 것이 의사, '환자', 보형물 혹은 물질 중 무엇이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설명되고 있다. 미용성형에 대한 몸의 반응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명되면서 의사들은 성형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성형외과의 상담과정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방 주입 후 지방이 너무 빨리 가라앉았다거나 코의 보형물이 휘어지는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환자가 해당 부위의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다이어트를 했다는 등 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하거나 혹은 '환자' 개인 몸의 특수한 반응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상담과정에서 감염, 부작용 등 수술의 위험성이 이야기된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거나 몇 퍼센트라는 수치로 이야기된다. 수술의 위험성을 좀 더 명시적으로 직면하는 과정은 의사와의 상담에서가 아니라 수술을 결정한 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이다. 여성들은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가능성'과 같이 수술 동의서에 기술된 위험들을 문자의 형태로 읽으면서 수술을 결정한다. 의사의 상담에서 제시되는 수치나 수술 동의서에 기술된 위험들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 혹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위험성이 현실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설명하지 못한다. 염증이 발생한 후 "이런 일은 종종 있다"거나 "큰 일이 아니다" 등 의사들의 이야기는 실제 사례 5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공감되지 않으며 설명되지도 않는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제공하는 '선의'는 재수술이다. 사례 5는 수술 전 실패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다시 수술하면 된다"고 했던 병원 측의 답변은 염증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녀의 불만은 미용성형 사고에 대한 판결들이 의사가 성실하게 부작용이나 실패 가능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 병원 측의 성실한 고지는 여성들이 성형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조건을 만들

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고지된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 위험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고통의 재현이 갖는 특수한 효과 때문이다.

성형의 실패라고 거론되는 부작용, 합병증 등은 성형을 문제시하는 시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의 뉴스나 인터넷 게시판 등 지배적인 재현에서 은폐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수술'로 일그러진 얼굴의 이미지나 감염이나 마취 문제로 수술 도중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 성형수술 부작용이 나타나는 연예인의 얼굴 등은 과잉이라 할 정도로 유포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성형 부작용'을 키워드로 입력해보면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을 입었다거나 지방 흡입 수술 후 복부 근육이 무리하게 절제되어 패혈증으로 고통 받은 이야기, 코 성형 후 2년여가 지난 후에 보형물에서 염증이 생기고 보형물이 피부 조직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고통의 이미지와 서사들이 공적으로 언설화될 때 오히려 일상적이지 않은 예외로 '게토화'된다는 스타(Star)의 논의를 들여온다면, 매체에서 재현되는 부작용, 합병증, 죽음 등은 단지 사실들(facts)로 축소되고 성형에 대한 신념을 교란시키지 못한다(Star, 1991). 위험한 상황은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외로 생각되는 것이다.

3) 고통의 인식과 성형수술의 정서

성형의 고통이나 부작용, 합병증 등의 정보들이 성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연령과 계층, 그리고 원하는 몸의 변형, 관리의

정도, 성형 종목 등에 따라 다르다. 매몰법이 생겼다고 해서 쌍꺼풀 성형을 할 마음이 생긴 30대 주부 사례 1은 전신마취를 하는 성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40대 주부 사례 6은 젊은 애들은 주저 없이 할텐데 나이가 드니 두려움도 커져서 성형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젊은 세대 여성들도 쌍꺼풀 성형까지는 하겠지만 코 성형은 못하겠다든지, 턱을 깎거나 뼈를 깎는 건 못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이와 같이 고통의 재현은 성형 종목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기준을 형성하며, 또한 고통을 피해 가기 위하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미용성형의 준비 단계로 만든다. 보다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인지,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의사는 누구인지, 덜 위험한 성형 종목은 무엇인지, 물질, 기계, 보형물 등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존스는 수술을 통한 몸 변형의 가능성만큼이나 부작용 · 합병증 등 위험에 관한 언설들이 공존하는 모순이 변형이 아니라 '만들기'라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현대 미용성형 문화를 지지하는 힘이라고 주장한다(Jones, 2006). 사람들은 성형실패 사례를 전시하는 사이트에서 수술로 망가진 얼굴의 이미지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수술이 잘못된 수술이고 성공한 수술인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여기에는 의학의 전문성, 안전, 위생, 물질 · 기계의 브랜드, 인증 여부 등 전문가적인 지식이 지배적으로 개입한다. 고통의 재현은 몸에 부담을 주는 고통이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물질이나 기계를 이용한 비외과적인 방법에 대한 선호와 권위 있는 기관의 인증 여부에 따른 무조건적인 믿음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즉, 여성의 위치나 성형에 대한 열망에 따라 과도하게 생각되는 외과적인 성형에

대한 선호는 제한될 수 있지만, 성형 자체에 대한 욕망과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이용한 다양한 성형기술들의 확장은 줄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외과적인 기법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반면에 외과적인 기법이라 할지라도 특정 부위를 변형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몸 변형이 가져올 기대를 이미 마음속으로 확정 지은 사례 여성들은 성형의 고통이나 부작용, 합병증 등의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그 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았던 사례 5는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을 의사가 성실하게 설명해주었다면 실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성형결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한다.

고통에 대한 인식이 성형 결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나아진 몸을 통해 느끼게 될 정서적 만족감과 지위 획득에 대한 열망이 성형에 수반되는 위험(risk)을 감수하고 넘어서야 할 장애(obstacle)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환은 〈도전! 신데렐라〉류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왜 '도전!'을 외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성형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술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과감하게 변형할 수 있는 '도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형 과정 전반에 수반되는 몸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최선'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도전! 신데렐라〉의 서사들은 미용성형시장이 고통의 재현을 통해 성형과 몸, 자아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미용성형이 정당화되는 주요한 기제는 몸보다는 자아의 위치를 우위에 두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0대

여성인 사례 6과 사례 7은 아줌마들에게 성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유가 된다면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외모 가꾸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기대되는 주체적인 여성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용기, 결단 등의 단어들은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성형을 선택하는 여성성을 구성해낸다. 또한 몸은 주체의 의지에 의해 조형 가능한 사물(thing)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미용성형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한 기제를 설명하고 있지만, 좀 더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은 성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처럼 거론되는 용기, 결단 등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실제 성형을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복잡한 정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몸을 조형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편 의료기술에 의한 몸 변형이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성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주체의 의지 혹은 선택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성형에 수반되는 몸의 고통이나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기대와 불안, 자기암시 등이 뒤얽힌 복잡한 정서를 체험한다.

Q: 수술 전에도 후에도 주로 잘된 사진들을 찾네요.
고민 올리는 사진들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특히 앞트임 상처들. 저는 앞트임 상처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구요. 주로 잘된 거를 보게 되고 사람들도 잘된 거를 올리죠. 잘못된 사진을 수술 전에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진짜 실제 주변에서 잘된 케이스를 본 사람인 경우는 결심이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Q: 잘 된 케이스가 영향이 더 크네요.)
네. 그런 바람에서 수술하는 거니까요. (사례 3, 28세, 직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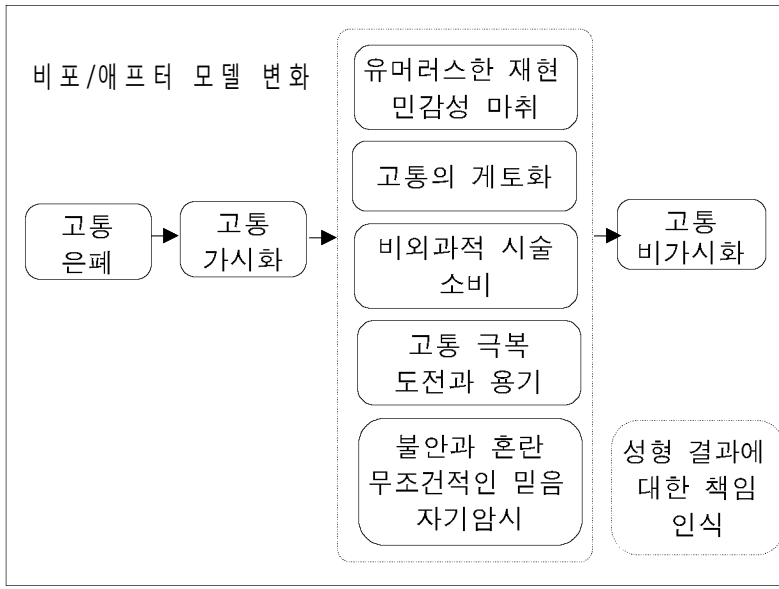
Q: 수술 시나 회복기의 고통을 알았다면 수술 했을까?
했을 거야. 실감을 못하니까. 겁은 먹지만. 글로 읽으면 글로 오지, 피부로 안 와...수술은 그냥 미쳐서 하는 것 같아. 실제 겪을 때는 다르게 해석되는 게 있지. 종군기자처럼 총알은 나를 피해갈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되지도 않는 믿음이 있어. (사례 4, 40세, 직장인)

사례 3은 성형수술 실패 사례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미 주변에서 잘된 사례를 보고 수술할 결심을 했고 또한 실패 사례를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에 성공사례에 동일시를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사례 4는 실패 사례는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혹은 "그냥 미쳐서 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이들의 서사는 실패 사례를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보다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예외적인 일로 게토화하는 고통의 재현효과를 보여준다. 성형 결정을 막연한 기대와 믿음, 비이성으로 설명하는 이들의 서사는 고통의 게토화가 결과하는 여성의 정서적 체험을 드러낸다. 지배적인 미용성형담론에서 차용하는 기업가적인 자아 개념은 성형을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자아의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이라고 설명하지만 여성 주체의 실질적인 정서적 체험들은 이러한 설명으로 해석되지 못한다. 의료와 소비가 결합한 시장에서 여성들의 선택은 합리성과 자율성 등 이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보다 불안과 혼란, 기대, 무조건적인 믿음, 자기암시 등 감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성형의 선택에 관여하는 감정들은 여성 본연의 욕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들이 미용성형시장에서 주체화되는 방식과 관련을 가진다. 여성들이 느끼는 기대와 희망, 불안, 혼란 등은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하는 미용성형시장에서 성형을 선택하고 소비함으로써 의료체계의

‘환자’가 되는 소비자/환자 주체의 독특한 위치에서 온다.

여성들은 미용성형을 주체적인 선택으로 의미화하지만 소비자로서 통제할 수 없는 의료의 영역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데 몰두하게 된다. 하지만 부작용과 합병증 등 명확하게 이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선택의 의지 자체를 흔들리게 한다. 성형 선택에 관여하는 복잡한 정서는 미용성형에 수반되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에게 있음을 수용하면서 주체화되는 여성 주체의 특수한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림 1> 미용성형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

6. 결론

본 연구는 미용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면서 성형을 실천하는 여성 주체의 등장을 비포/애프터 모델의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미용성형의 탈신비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였다. 미용성형시장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성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증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된 지식과 정보들이 방대하게 유포되는 미용성형시장에서 여성들에게 유용한 지식이 되는 것은 성형을 직접 체험한 이들이 제공하는 경험적 지식들이다. 인터넷 성형 커뮤니티는 미용성형 의료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과 기대뿐만 아니라 성형에 수반되는 고통과 위험, 불확실성 등이 유통되면서 미용성형의 탈신비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여성들은 성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성형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공유하면서 임파워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미용성형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지식·정보를 공유하며 의료기술과 몸 자체와 새로운 방식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에서 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가되는 '변형 중인' 몸 이미지들은 여성의 몸을 시각화된 대상으로 만들며, 여성 주체들을 광범위하게 미용성형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된다. 여성의 몸 이미지들이 성형에 수반되는 고통과 위험, 불확실성을 가시화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것'으로 범주화되거나 자기 돌봄의 과정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비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용성형 의료기술의 탈신비화와 고통의 비/가시화는 성형의료기술과 몸, 자아의 관련성을 '성형 친화적

인' 것으로 구성해내면서, 미용성형시장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가치들을 해결하고 안정화하는 책임이 여성 주체의 능동적인 학습과 준비로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소비 행위는 성형에 내재한 위험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된다. 미용성형의 실천이 위험의 사적인 관리로 의미될 때, 위험을 극복하고 몸을 변형할 수 있는 '용기', '도전'은 미용성형 주체가 갖춰야 할 심리적인 준비로 강조된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기대되는 주체의 형상과도 겹쳐지는데, 경쟁중심적인 시장 사회에서 자신을 돌볼 역량, 자율성, 자유를 부여받은 개인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신중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취하는 기업가적인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형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여성들이 언설화하는 정서들, 즉 막연한 기대, 믿음, 불안, 자기암시 등은 자율적인 선택, 주체적인 소비, 사적인 위험관리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체의 형상이 미용성형 주체를 설명하는데 불충분함을 드러낸다. 이는 미용성형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학습하고 준비하며 판단하면서 성형 의료기술과 몸, 자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실제의 몸과 재현된 몸 이미지 사이를 분리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용성형을 '보다 잘 알게' 되는 과정에 매개되는 이미지로서의 몸은 실제적인 몸과 자아의 성찰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성형 의료기술과 몸, 자아의 관련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실제의 몸을 지닌 여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초과하는 복잡한 정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용성형 주체 '되기'의 과정은 성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능동적인 학습을 통해 미용성형에 내재한 모순적인 가치들을

해결하면서 시장에 포섭되는 주체를 생산함과 동시에, 성형에 수반되는 복잡한 감정과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미용성형 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체적인 선택, 소비의 의미를 질문하는 주체를 또한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일화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는 미용성형 주체의 형상은 여성의 몸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의 전략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미용성형 의료기술과 여성의 몸, 자아의 관계에 개입 지점을 생산할 잠재성을 지닌다. 이러한 가능성은 여성들이 시장의 다층적인 맥락과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석주 · 정진경(1992), “외모와 억압”,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8권, 33-75쪽.

권수현 · 이정희 · 이준원(1996), “외모 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20대 여성의 성형수술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30집, 237- 278쪽.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서울: 또하나의 문화.

보르도, 수잔(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옮김,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엄현신(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박사학위 논문.

우경자(2002), “여성의 외모주의와 성형의료산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임인숙(2002),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6집 3호, 183-204쪽.

장정화(2001), “여성의 성형경험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정세진(2006), “유방관리 산업의 확장과 여성의 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옥선(2005), “여성의 몸 담론과 성형담론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의 기사와 성형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매체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현진(2004), “성형수술자의 경험을 통해본 중년 여성의 ‘나이듦(aging)’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

학위 논문.

태희원(2011), "미용성형의료 네트워크의 재구성과 소비자/환자 주체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한서설아(2000), 『다이어트의 성정치』, 서울: 책세상.

Allison, A.(2009), "The Cool Brand, Affective Activism and Japanese Youth", *Theory, Culture & Society*, 26(2-3), pp. 89-111.

Brooks, A.(2004), "Under the Knife and Proud of It: An Analysis of the Normalization of Cosmetic Surgery", *Critical Sociology,* 30(2), pp. 207-239.

Dixon-Woods, M.(2001), "Writing Wrongs? An Analysis of Published Discourses about the Use of Patient Information Leafle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2(9), pp. 1417-1432.

Ferguson, T.(1997), "Health Online and the Empowered Medical Consumer", *Journal of Quality Improvement*, 23(5), pp. 251-257.

Fraser, S.(2003), *Cosmetic Surgery, Gender and Cultu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Gordon, C.(1991),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ed. M. Foucault, C. Gordon, M. Peter, and G. Burchel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52.

Henwood, F., S. Wyatt, A. Hart, and J. Smith(2003), "'Ignorance Is Bliss Sometimes': Constraints on the Emergence of the

'Informed Patient' in the Changing Landscapes of Health Information",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5(6), pp. 589-607.

Heyes, C. J.(2007), "Normalisation and the Psychic Life of Cosmetic Surgery", *Australian Feminist Studies*, 22(52), pp. 55-71.

Jones, M.(2005), *Makeover Culture: Landscapes of Cosmetic Surgery*, Ph. D. Thesis, Centre for Cultural Research,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Lupton, D.(1997), "Consumerism, Reflexivity and the Medical Encounter", *Social Science & Medicine*, 45(3), pp. 373-381.

McPherson, T.(2005), "Transform Me, Please...", *FlowTV*, 1(08), Department of Radio, Television, and Film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flowtv.org/2005/01/transform-me-please%e2%80%a6/.

Morgan, K. P.(1991), "Women and the Knife: Cosmetic Surgery and the Colonization of Women's Bodies", *Hypatia*, 6(3), pp. 25-53.

Pitts-Taylor, V.(2007), *Surgery Junkies: Wellness and Pathology in Cosmetic Cultur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Rose, N.(1993), "Government, Authority and Expertise in Advanced Liberalism", *Economy and Society*, 22(3), pp. 283-299.

Star, S. L.(1991), "Power, Technologies, and the Phenomenology of Conventions: On Being Allergic to Onions", in *A*

Sociology of Monsters: Essays on Power, Technology, and Domination, ed. John Law, New York: Routledge, pp. 26-56.

원고접수: 2011. 05. 02
원고수정: 2011. 05. 16
게재확정: 2011. 05. 31

〈Abstract〉

Changing Perceptions of Cosmetic Surgery arising from Changes in Knowledge Acquisition

Hee-Won 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 which has occurred in how cosmetic surgery subjects acquire information about their upcoming cosmetic surgery. As the market competition among providers of cosmetic surgery increases, the trend of deregulation is spreading. This is creating the current context concerning how cosmetic surgery subjects aquire information about their surgery. Cosmetic surgery is not a 'magical transformation', rather it is a series of steps involving various professionals, technology, materials and equipment. Information about cosmetic surgery includes the possibility of body transformation as well as the coexistence of pain, risk and uncertainties. Unlike in the past where cosmetic surgery subjects relied on their information from advertising or articles which the hospital provided, currently they acquire the medical knowledge of methods, techniques, materials and equipment of cosmetic surgery from access to the Internet and the online shared experiences of cosmetic surgery recipients. Via the internet, cosmetic surgery recipeents shared knowledge, information, and their emotional experiences with people considering cosmetic surgery, and thus obtained the ability to transform their personal experience into

a ‘universal’. However, these experiences produced by women of their body ‘being transformed’ induce women to come to the cosmetic surgery market because exceptions are categorized or are invisible due to the switch in how information is now acquired. Thus the pain, risks and uncertainties of cosmetic surgery are no longer effectively communicated. This change in perception makes the issue of knowing ‘how the cosmetic surgery is done’ more important, whereas the selection itself about the cosmetic surgery is not important.

KEY WORDS: cosmetic surgery, cosmectic surgery subject, before/after model, demystification, sufferring